



「사랑의 손길」은 '천주교 서울대교구'와 '한마음한몸운동본부'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제주교구 나오미센터

“
**제주도 이주민
 난민의 동반자, 나오미**
 ”

“8, 10, 11, 13”

나래(24세, 가명)의 동생들 나이입니다. 예멘 전쟁을 피해 나오다가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. 2018년 아빠와 함께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아빠는 어떤 일에 연루되어 출국한 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나래는 나오미센터의 도움으로 월셋집에서 살면서 재봉 기술과 자수를 배워 틈틈이 손가방을 만들어 팔거나, 옷 만드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.

나래의 막냇동생은 한국에 왔을 때 5살이었습니다.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, 아랍어보다 한국어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해 나오미센터 직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나래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불인정을 받았고, 현재 예멘이 전쟁 중인 것을 고려하여 '인도적 체류 허가'를 받고 매년 체류비자를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 언제든 전쟁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, 이곳에서 자라면서 한국어만 배운다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처음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어만을 열심히 배웠지만, 이제는 떠날 날을 위해서 모국어도 잘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은 난민 신청자들,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매우 벅찬 일입니다.

이승협 신부(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장)가 운영하는 나오미센터는 제주도 유일의 가톨릭 이주사목 센터입니다. 구약 룻기



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, 난민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미사 및 성사, 상담, 한국어 교육, 병원 진료 동행 및 무료 클리닉 운영,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태어나고 한국으로 이주해온 청소년을 '중도입국 청소년'이라고 합니다. 어느 날 부모 손에 이끌려 한국에 왔고, 오자마자 부모는 일터로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 집니다. 아무 준비 없이 교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. 나오미 공부방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 및 심리 상담 치료까지 해주면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적응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.

가족이 살 집을 구해 주고, 부모들의 직장을 소개해 주고,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는 일까지, 나오미센터의 업무는 폭이 넓습니다.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그곳에도 나오미센터가 있었을 것입니다. 이주사목은 하느님의 일입니다.

나래 가족처럼 난민불인정 상태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꽤 많습니다.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, 후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.

* 모아주신 후원금은 전액 **나오미센터**에 지원되어 노후 시설 개선, 이주난민 의료 및 보건 지원, 심리 상담 치료 활동 등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.

후원계좌 | **우리은행 1005-180-003488 (재)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**
 2021년 9월 4일~10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'제주교구 나오미센터'를 위해 쓰여집니다.

서울주보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금은 소독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

